

<동정자료>

과로사회 탈출 · 안전한 대중교통 위한 근로시간 단축 협조 당부 **국토부 1·2차관 버스 업계·종사자 의견 수렴...공공성·안전 강화 대책 마련 약속**

-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과 김정렬 제2차관은 7월 2일(월)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버스의 운행 상황과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.
- 손병석 제1차관은 동서울 버스터미널을 방문해 시외버스 업계 관계자와 운수종사자를 만나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,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.
- 손 차관은 “노동시간 단축은 버스 운전자의 과로사회 탈출과 이를 통해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.”라며,
 - “일각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규모 노선 감축 등이 예상되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없는 것 같아 그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에게 감사 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 - 이어, “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운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, 탄력근로제 적용 등에 있어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특히, 손 차관은 “운전자 부족, 임금 감소 우려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.”라며,
 - “이에 대해 정부가 연말까지 ‘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’을 마련할 계획이므로,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”라고 말했다.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경기도 안양시 시내버스 업체인 삼양운수를 방문해 버스 업계 관계자와 운수종사자를 만나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도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.
-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“노동시간 단축은 버스 운전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해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”라며,
 - “노동시간 단축으로 대규모 노선 감축 등의 일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스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버스 업계 관계자와 운전자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 - 또한, “앞으로도 국민 불편 방지를 최우선으로 버스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종사자 채용 노력 등 적극 힘써 달라”라고 강조했다.
- 특히 김 차관은 “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근로 관행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고, 인력 채용, 임금 보전 등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”라며,
 - “정부는 버스 산업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‘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’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사가 적극 참여해 달라.”라고 강조했다.

2018. 7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